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完全한新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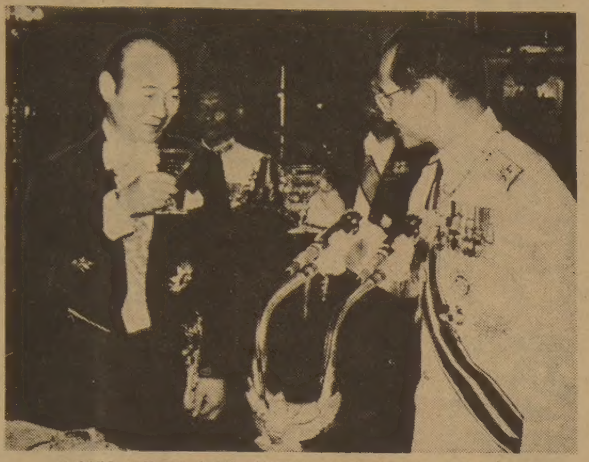
泰農村개발 技術지원

韓·泰首腦、地方시찰중 會談

泰、韓國의 協力증대·投資보장

兩國 域內 平和·安保도 논의

오늘共同聲明·記者회견 僑民리셉션도 참석



◇泰國을 방문중인 全斗煥 대통령이 3일밤 그를위한 환영연회에 참석, 푸미폰 泰國왕과 건배를 들고있다。【방콕3日AP話=聯合】

【방콕4日=尹國炳특파원】 全斗煥대통령은 泰國방문 이틀째인 4일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당초일정을 바꿔 泰國북쪽 캄보디아와의 국경에서 48km떨어진 지역의 농촌개발사업을 시찰하고 현장에서 푸미폰國王및 프렘수상과 韓泰頂上회담을 가졌다. 全대통령 내외는 이날 상오11시 (현지시간 상오9시·이하 한국시간) 푸미폰國王부처및 프렘수상과 함께 헬리콥터便으로 國王의 力點개발지역인 캄보디아接境지대의 농촌을 돌아보고 하오7시 방콕으로 돌아왔는데 푸미폰國王및 프렘수상과의 회담은 헬機를 내려 시찰현장으로 가는 車中과 오찬시간에 이뤄졌다. 이날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은 5일하오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韓泰頂上및 首腦회담에서는 최근 양국의 지역정세를 비롯한 국제정세전반에 대한 의견교환과함께 양국의 域內평화와 안전、經濟등 각분야에걸친 협력증진방안등에대해 협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은 1·12및 6·5提議등 南北최고책임자간의 직접대화를 통해 통일에 접근해가려는 한국정부의 평화통일努力과 南北韓유엔同時가입에 대한 泰國의지지 그리고 국제외교사회에서의 상호협력문제등을 폭넓게 논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양국頂上들은 또 두나라무역의 균형적인 확대방안과아울러 자본과 기술협력등 泰國의 제5차경제및 사회개발계획에대한 한국의 협력증대와 투자보장문제 그리고 泰國의 농촌근대화를위한 기술지원문제등을 협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정상들은 또 泰國이 현재 직면하고있는 캄보디아難民문제와 관련, 難民구조사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계속적인 협조문제도 아울러 논의된것으로 전해졌다. 푸미폰泰國국왕은 이날 농촌개발사업시찰현장에서 全대통령에게 水利와 灌漑사업등에 관해 설명했다. 李鎔熙청와대대변인은 이날의 농촌시찰은 푸미폰泰國왕비가 3일하오 비서실장을 보내『각하께서 거절하셔도 좋다』고 전제,『泰國의 농촌을 좀 봐주셨으면 한다』고 정중히 요청해온데 대해 全대통령이『국왕과 같이간다는데 어떻게 거절할수 있느냐』고 흔쾌히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갑자기 일정이 바뀌게 됐다』고 전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농촌시찰을 마친후 하오8시30분 프렘泰國수상이 방콕시내 정부청사에서 베푼 리셉션에 참석한후 泰國방문 이틀째의 밤을 보냈다. 全대통령은 일요일인 5일 상오 방콕시내의 古宮과寺院을 시찰한후 하오에는僑民을 위한 대사주최 리셉션에참석, 이어 外信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음 이날밤 푸미폰國王부처를위해 만찬을베풀며 6일낮 이번 아세안巡訪의 마지막 방문국인 필리핀으로 떠난다.

國王주최晩餐 全대통령은 3일밤 …… 국제환경하에서 自由· 平等·繁榮이라는 공통의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는 우호국가들간의 상호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말하고『이러한 긴밀한 협력관계는 平和롭게 유지시키며 각國으로 하여금 自國에 맞는 경제개발과 정치안정을 가능케하고 국민의 복지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큰도움을 줄것』이라고 강조했다.

全大統領 아세안巡訪日程

◇5일(泰國·한국시간) ▲상오=大王宮、에머랄드寺院방문 ▲하오=駐泰대사주최 리셉션 ▲〃=기자회견 (라마 타워호텔) ▲〃=푸미폰국왕부처를위한 만찬주최

◇6일(泰國·필리핀) ▲상오=泰國王告別예방 ▲〃=돈무앙기지출발 ▲하오=마닐라국제공항도착 ▲하오=리잘기념비獻花 ▲〃=比대통령예방·만찬(대통령궁)

"未修交國과 直交易제의 蘇등交易聯서 仲裁동의"

한국代表團회견、모스크바總會참석후 歸國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열린 세계교역센터협회(WTCA) 제12차 총회는「수교가 없는 나라사이의 直交易을 WTC가 중재토록하자」는 한국측의 제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WTCA 모스크바총회에 참석한뒤 3일 귀국한 한국대표 貿易協會 金鳳根부회장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소련측이 우리대표단의 입국을 허용한것과 未修交國사이의 直交易에 관한 우리측의 제의에 동의한것은 중요한 의미가있다고 본다』고말했다.

黃致(貿協이사)申榮珏(〃)金德中씨(大宇實業사장)등과 함께 4명으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의 단장으로 이 회의에 참석했던 金부회장은『회의에 참석한 소련및 동구권의무역관계책임자들과 개별적인 접촉을통해 우리측의 교역의사를 충분히 전달했다』고말했다. 지난달 19일 일본도오쿄에서 JAL便으로 모스크바에 직행한 우리측대표단은 회의를 마친후 25일부터 27일까지 레닌그라드를 관광한뒤 SAS(스칸디나비아항공)便으로 오슬로를거쳐 귀국했다.

「東西무역의 장래전망」을 주제로 모스크바시내의 레즈드 나르드나호텔에서열린 WTCA총회에는 세계 30여개국 무역관계대표자 2백여명이 참석했는데 비회원인 北韓은 업저버자격으로도 참석지 않았다. 총회장에 태극기가 게양된채 진행된 이회의에서 소련의 대외무역성차관인 주라브레프가 기조연설을했으며 소련상공회의소회장 보리소프는 …… 80년부터 시작된 5차 5개년경제계획의 추진을 경제의 활성화와 기술도입확대로 잡고있기 때문에 서방측과의 경제교류확대를 원한다는것 같았다고 金부회장은 전했다.

해설 우리貿易협회 비슷 會員44국 百개團體

WTCA란 세계교역센터협회를 뜻하는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의 약자. 우리나라 무역협회와 성격이 비슷한 각국의 무역단체들을 회원으로 하고있다. 지난 68년4월 미국 뉴올리언즈에서 창립되었고 미국뉴욕에 본부가 있다. 현회원은 44개국 1백개단체. 우리나라는 지난 72년1월 정회원으로 가입했고 76년6월 제7차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당시 40개국 1백7개단체가 서울총회에 참가했다.

日、朝總聯「금강산」公演 허가

9월8일 고베海洋박람회서 歌劇團명목의 宣傳단체

【東京4日=宋孝彬특파원】일본정부는고오베(神戶)해양박람회인 포토피어에 조총련의 전속 선전단인 금강산가극단의 공연을 허가했다. 주일대표부는 3일 일본정부의 이같은 처사가『한일우호친선에 균열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 항의하고 나섰다. 일본은 앞서 北傀의 交競極의입국을 허가해 한때한일관계에 영향을 끼친바있다. 한국은23개국이참가하고있는 고오베시해양박람회에 참가, 40명으로 구성된 국립무용단은 8일에서 10일까지 한국민속무용을「국제광장」에서 공연할계획이다. 포토피어 회장인 고오베시장 미야자끼(宮崎)씨는 조총련의 공연무대도 따로 제공토록 허가했다.

조총련의 전속무용단인 금강산은 북괴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을 하루앞둔 9월 8일 포토피어야외음악당에서 공연하겠다고 시당국에 신청했었다. 崔慶祿주일대사의지시를받은고오베총영사는고오베시당국에 한국의 민속무용단이외에 조총련의 선전도구인 금강산가극단의 공연을 허가한것은 부당하며、한일우호친선에 균열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허가취소를 요청하고있다. 고오베시장은금강산가극단의 공연허가는 일체 정치적인 선전을 하지않는다는 전제아래 결정했다고 해명하고있다.

"蘇戰力 85년엔 西方을능가"

美、日에 自衛力증강 요구

【東京4日=宋孝彬특파원】요미우리신문은 4일 정부소식통을 인용, 미국이 일본의 자위력증강을 요구하는 것은 소련이 85년에 서방측의 전력을 능가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신문에 의하면 미국방성이 종합한 소련전력의 평가내용은 ①소련이 세계적으로 동시에 여러곳을 침공할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②소련의 침공은 중동에서 야기될 가능성이 많으며 동시에 歐洲, 아시아에 파급될것이고 ③아시아지역에서는 한반도와 일본이 동시에 침공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日 次官대표단 8월초에 訪韓

【東京3日=鄭…】아이찌·가즈오(愛知和男) 외무성정무차관을 비롯하여 차관들로 구성된 일본정부대표단이 오는 8월초 한일양국간의 관계개선을 위해 한국을 공식방문할것으로 3일 알려졌다. 共同통신은 정부소식통을 인용, 아이찌차관을 비롯 가와라·쓰도무(瓦力)관방부장관, 야마자끼·다꾸(山崎拓)방위청정무차관등 한차관대표단이 한국을 방문, 한국정부관리들과 솔직한의견을 교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소식통들은 이들대표단이 8월말께 열릴것으로 보이는 한일외상회담과 그뒤에 열릴 정기각료회의 및 연내에 열릴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는 全斗煥 대통령과 스즈끼(鈴木)일본수상간의 정상회담에 대비, 사전준비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1회 鳳凰大旗 高校野球

- 徽文高
- 全州高
- 仁川體高
- 冲岩高
- 서울高
- 聖光高
- 公州高
- 光州眞興
- 善隣商高
- 慶南高
- 京畿高
- 釜山高
- 奬忠高
- 慶北高
- 中央高
- 大田高
- 木浦商高
- 慶南商高
- 培明高
- 仁川高
- 東大門商
- 浦鐵工高
- 清州高
- 心石綜高
- 城南高
- 信一高
- 東山高
- 光州一高
- 江陵高
- 德壽商高
- 北一高
- 馬山商高
- 明知高
- 世光高
- 普成高
- 大邱商高
- 春川高
- 培材高
- 永同商高
- 在日同胞
- 大邱高
- 京東高
- 群山商高
- 釜山商高
- 培文高
- 南大田高
- 光州商高
- 馬山高
- 大光高

社告

전국49개팀 참가 1·2回戰 對陣확정

名門·強豪한자리에 8월6일 서울運서 플레이·볼

在日同胞팀·創團 初年生 浦鐵工·大邱聖光高 참가

오는 8월6일 개막되는 제11회 鳳凰大旗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한국일보·대한야구협회 공동주최)의 1·2회전 대진이 확정되었다. 鳳凰大旗대회에 출전하는 전국 49개 고교팀관계자들은 4일하오 한국일보 13층 회의실에서 대진 추첨식을 갖고 초반2회전까지의 대진을 확정했다. 3회전부터는 경기진행과함께 계속추첨으로 다음 대진이 결정된다. 이번대회는 국내 고교등록팀 50개팀중 48개팀과 在日同胞팀등 49개팀이출전, 75년도에 이어 국내야구대회사상 최대규모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창단3년만에 처음 草綠鳳凰大旗의 영광을 차지한 北一高를비롯, 善隣商, 釜山商, 慶南高, 大邱高, 慶北高, 仁川高, 東山高등 전국의 명문강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지난해 대회일정 조정으로 불참했던 在日同胞팀도 다시 모국방문길에 오르게되며 창단초년의 浦鐵工高, 德壽商高, 大邱聖光高, 南大田高도 이번대회에서 처녀출전을 보이게된다.

★관련기사9면

한국일보社

"6·5提議 성실히 응하라"

調節委 7·4聲明따른 交流·協力도

南北調節委員會 서울측은 7·4南北공동성명 발표 9주년을 맞아 4일 성명을 발표,『北韓측은 참다운 민족양심을 되찾아 지금이라도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對話、交流、協力에 성실하게 나오라』고 강조하고 全斗煥 대통령의 1·12제의와 6·5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調節委서울측은 이성명에서 또『南北쌍방은 당초 7·4공동성명에 합의할때 이의 성실한 이행을 엄숙히 다짐했고 어느 一方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기되거나 파기될수없는 역사적 합의문서인것이다』고 지적하고 北韓측은 휴전선全域에서 실시하고있는 對南誹謗확성기방송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이어 7·4공동성명이 南北간에 상호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조성하기위해 상호중상비방을 중지하기로 하고 크고작은 무력도발을 그만두며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기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쌍방간에 多方面적인 교류를 실시하며 남북직통전화를 가설, 운용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해 민족단결의 분위기를 성숙시켜 分斷조국의 자주, 평화통일을 이룩하기로한합의를 상기시켰다.

금주중에 總務회담 臨時國會 召集논의

李鍾贊民正·高在清民韓黨총무는 4일하오 비공식접촉을 갖고 제108회임시국회 소집원칙을 재확인하고 금주중 총무회담을 열어 구체적인 문제를 논의키로했다. 이날 접촉에서 高총무는 7월20일께 10일간 임시국회를 열자고 구체적일정을 제시했는데 李총무는『개원국회가 있으면 연다는 원칙에는 변함이없다』고 종래방침을 되풀이했다.

社會漫評

해마다 겪는길…

地平線

지난 72년 일본은 자유중국과의 국교를 끊었다. 정부차원의 채널은 모두 없어지고, 다른 레벨의 교류가 모색되었다. 그중의 하나가 국회의원끼리의 모임인「日華議員간담회」。그러나 일본신문이 모임을 보도할 때는「日臺議員간담회」로 이름을 둔갑시켰다. 北京 눈치를 보느라, 국제친선 단체의 고유명사를, 나아가 남의 나라 國號까지 바꿔치기 한것이다. ▼歐美語에서 중국을 가리키는「차이나」나「시네」는「秦」나라 國號에서 온다. 마찬가지로 일본사람들은 예부터「支那」라는 말로 중국을 불러 왔다. 中華民國이 성립되고 30여년이 지나도록「支那事變」따위를 고집했던 일본사람들은, 전쟁에 지고 나서는「支那소바」라 부르던 중국국수까지「中華소바」「中國소바」로 승격시켰다。얍삽하다면 얍삽한 얘기다。▼비슷한 잔재는 우리도 겪고 있다。저들에 의하면 이 땅에는 北에「朝鮮」이 있고, 南에는「韓國」이 있다。그러나 정치를 떠난 호칭은「朝鮮」이라야 옳다。그것이 예부터 내려오는 일본사람들의 通念이니까!。그럴듯하지만 좀 이상하다。그 말대로하면, 중국대륙과 臺灣을 합친 通稱은「支那」라해도 좋을까。「臺灣」과 국교가 없어서, 곧「支那」라 해야한다면, 국교가 있는「韓國」과, 아무런 외교관계가 없는「朝鮮」의 호칭관계는 어떠해야 옳을까。▼일본의 NHK텔레비전이 20년가까이 미뤄 오던 우리말 강좌를 개설하면서, 그이름은「朝鮮語강좌」로 고집한다고 한다。내세우기는 역시 묘한 通稱·通念論이다。더구나 그들이 말하는「朝鮮語」는 서울중심의 현대어라고 한다。서울에 지국까지 두고 있는 NHK가「朝鮮語」를 쓰는「朝鮮人」이 서울에 한사람도 없음을 모르는 모양이다。▼일본사람들이 좋아하는「朝鮮」을 國號로 했던 옛날부터, 8·15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대한 우리네 通念·通稱은「倭」였다。「倭寇」「倭亂」「倭學」, 게다가「倭놈」… 그러나 지금은「倭」란말을 공용어로 쓰지 않는다。그런데 저들은 大韓民國이란 이웃 나라와 國交가 생겨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 대한 通念·通稱이「朝鮮」이라 내세운다。▼적어도 NHK는 韓國語를 쓰는 韓國人이 4천만이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은「植民地」「朝鮮人」이 싫어「朝鮮」이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朝鮮」이란 잘못된 通念·通稱을 바로잡는 것이, NHK 같은 여론기관의 임무라고 우리는 믿는다。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아몬드 전당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58
은 : 온스당 US 10.08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424-2599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교포사회의 등불 한국일보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효과!
(416) 533·2361

여러분의 삼복식품

한번 와 보세요.
또 오시게 됩니다.
왜냐구요?
삼복식품점은
첫째 : 친절하고
둘째 : 정직하고
세째 : 물건이 싱싱하니까요
그리고 만족한 쇼핑을 하고 돌아가시게 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여름철 식탁준비는 친절하고 정직한 **삼복식품점**으로……

①	물오징어 BOX당	$12.95
②	조기(굴비용) BOX당	55.50
③	물미역 BOX당	44.50
④	미역줄기 BOX당	44.50
⑤	당 면 BOX당	120.00
⑥	냉 면 BOX당	45.80
⑦	이면수 1 lb당	2.95(½price)
⑧	삼 치 1 lb당	2.25(½price)
⑨	한국산고추가루 1 lb당	3.45
⑩	한국산동태 1 lb당	1.25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전화 : 743-8270

홍콩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誌보도

韓國人이 달려오고 있다

"「한국-아세안」은 「陽과 陰」의 만남"

홍콩의 유력주간지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誌는 全斗煥 대통령의 아세안국순방을 계기로「한국과 아세안—陽과 陰의 만남」이란 제목의 표지특집기사를 다루었다。 다음은 同誌의 로드니·태스커기자가 쓴「아세안에 求婚하고있는 한국— 全대통령은 訪美성공에 이어 아세안에 눈돌리다」라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요약한것이다。 【편집자註】

全대통령巡訪 各國反應좋아

日産業力 견제勢로 교역·經協急增예상

한국인이 달려오고있다。 추진력있는 남성적 陽의 요소를 지닌 한국이 부드럽고 여성적인 陰의 요소를 가진 아세안에게 구혼을 하며 달려오는 격이다。 한국측은 1974년 東南亞를 다녀간 다나까(田中角榮)日本수상은 친선은커녕 反日감정만 폭발시켰고 그의 후임자들 역시 별로 환대를 받지못한채 巡訪을끝낸 사실을 잘알고있다。

그러나 한국과 아세안과의 관계는 일본의 그것과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한국은 이지역을 한번도 정복했거나 점령한적이 없다。 한국의 對아세안무역및 경제관계는 급속히 증가하고있다。 하지만 동남아각국이 일본을 경계하는 신경과민증세같은 것은 對韓관계에 나타나지 않고있다。 확실히 많은사람들이 한국을 일본의 상업세력에 대응하여 견제하는 세력으로 보고있으며 일본대신 한국에서 완제품을 사들여올수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일본과는달리 한국은 아세안과 대등한 친구관계를 가질수있는 개발도상국가이다。 열심히 일하는 한국인들은 지난10여년간 놀랄만한 속도로 경제를 발전시켜왔고 선진공업국 대열에 낄날도 멀지않게 되었다。 6백억달러에 이르는 국민총생산(GNP)와함께 한국은 아세안의 다른어느 국가보다도 경제적으로 앞섰다。 비록 1인당소득으로 따지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지아가 더 부유하기는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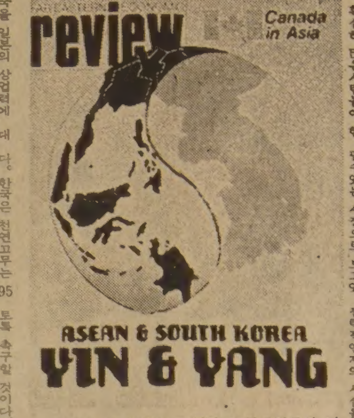
한국과 아세안은 직물류와 신발류등에 서방국들이 보호무역장벽을 친데 대해 공통적인 문젯점을 갖고있다。 한국은 지금 공업건설에 힘을 기울이고있어 아세안국가가 대부분 공업화의 초기단계에 있는것과 달리 일본의 고도한 공업수준을 바짝 뒤따르고있다。 全대통령은 아세안각국을 순방하면서 그들과 對日무역적자에 관해 共感할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각국의 對韓수출은 80년에 14억8천만달러에 이르렀고 수입은 11억3천3백만달러를 기록、아세안의 對韓무역흑자는 3억4천7백만달러에 달했다。 아세안 5개국은 한국을 그들의 원자재의 반제품을 팔수있는 시장으로 보고있다。 한국은 천연고무는 95%、주석은 70%、원목은 80%를 아세안에서 수입하고있다。

全대통령은 아세안 5개국방문동안 경제문제이외에 다음두가지문제를 갖고 외교적인 공세를펼것이다。 그것은 비공산동북아국가와 동남아국가간의 전략적연계와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하려는 서울측의 노력에 대한 지지다。

서울측의 견해로볼때 한국이나 아세안이나 모두 소련의 팽창주의라는 공통의 위협에 직면해있다。 한국은 중공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들은 美·中共간의 데탕트로 이러한 위협은 제거됐다고 느끼고 있으며 全대통령은 워싱턴방문시 『중공은 우리의 친구의 친구』라고 말했다。 더우기 최근에 北京에 간 헤이그美국무장관은 한국의 군사적능력을 강화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에 중공이 아무런 반대도 않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소련태평양함대와 소련의 아시아국경주둔군의 증강은 경계요인이다。 한국은 지금 GNP의 6%를 국방비에 쓰고 60만군을 유지함으로써 동남아안보에서 큰부담을 감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또 동남아 베트남등 인도차이나 3국에 소련이 주둔함으로써 위협받고있다고생각하고있다。 따라서 全대통령은 아세안국가들에 이 두지역간의 전략적연계의 사실을 인정토록 촉구할 것이다。

한국은 베트남군의 캄보디아철수를 요구하는 유엔결의안과 이문제 토의를위한 유엔국제회의를 꾸준히 지지했다。 필리핀을 제외한 아세안의 나머지회원국은 모두北韓과외교관계를터놓고있다。 北韓은 全대통령의 아세안순방발표가 있은지 한달후인 6월초순 부수상 許錟을 아세안국가에 파견했다。 許錟은 수하르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모하티르 말레이지아 부수상과 회담했지만 싱가포르와 泰國에서는 외면당했다。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려는 아세안국가의 여망에 비춰볼때 한반도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일반적 여망은 공동성명에 담고 한국정부를 따로 지지하는 입장은 私的인 자리에서 피력될 것으로 보인다。 全대통령의 아세안순방을 통해서 한국정부는 아세안각국과의 개별적 쌍무관계 개선보다는 다섯나라와의 집단적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다。 한국은 아세안 지역을 공략하고 있고 그 성과는 시간이 말해줄것이다。



한국과 아세안을 太極의 陰陽관계로본 파·이스턴誌 표지。

鄧小平의 5년 攻略

「1中全」에서 「6中全」까지 <5>

胡·趙體制장애세력은 軍部

TV 실황중계로 團合과시

대학생 여론조사…"10년내 文革派복귀한다"

中共은 지난달 29일 폐막한 6中全會와 1일의 黨창설60주년기념식을 모두 TV중계를통해 10억인민들과 전세계에 생생히 보여주었다。

그동안 鄧小平파의 불화설이 끈질기게 나돌던 葉劍英이 부축을받으며 6中全會에 참석, 순번에 따라 黨주석선출투표를 하는장면이나 전원거수로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를 만장일치 채택하는 모습은 외견상 中共黨이 안정단결을 과시하는듯했다。

黨창설60주년기념식에서 胡耀邦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미소를 띠어가며 2시간가량 새시대를 여는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중공은 작년11월 4인방재판과정을 우주중계함으로써 세계의관심을 끌었는데 이번에도 우주중계를 통해 黨의 단결을 국내외에 과시하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일이 實踐派의 기대대로 충족되어갈지 더 두고봐야한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역사결의의 내용이나 華國鋒의 상무위원회 잔류결정등을 보면 이번 6中全會가 실천파의 완전한 승리라고 말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胡―趙시대가 막을 올렸지만 꼬리를 감추고 물러앉은 반대세력들은 장애물처럼 도처에 매복해있다。

가장큰 장애세력은 軍이다。「권력은 銃口에서 나온다」고 毛澤東이 일찌기 말했던것처럼 軍을 장악하지않고서는 아무일도 되지않는다。

中共헌법은 중국공산당이 「국가와 인민의 지도적中核」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당주석이 군통솔권을 갖도록 하고있으나 중공의 4백50만 인민해방군은 과거 막강한지도력을 행사했던 毛澤東도 쉽사리 통솔하지 못했다。

軍은 언제나 정치투쟁의시발점이었다。 역사결의에서 毛澤東이 저지른 좌경적과오의 하나라고 지적되고있는 反右派투쟁의 시발로 59년당시국방부장 彭德懷와 총참모장 黃克誠이 대약진운동, 인민공사등을 비판하고 국방력의 근대화를 주장하다가 해임당함으로써 비롯된것이다。

또 66년에는 총참모장 羅瑞卿이 毛澤東의 군사사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고 71년의 林彪사건도 軍部장악을 둘러싼 정치투쟁이었다。 鄧小平도 76년 軍內에 走資派를 부활시키려 했다는 혐의를받고 두번째로 실각했다가 4인방타도이후 다시 총참모장에 복귀했었다。

軍部내의 노선도 鄧小平의 등장과함께 서서히 근대화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79년2월 베트남과의 전쟁을 일으켰다가 망신을 당한격이된 鄧小平은 인민전쟁을 중시하던 毛澤東의 과거노선에서 탈피, 근대전쟁에 적합한 무기와 장비의배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軍의 경영방침은 달라졌지만 軍部내에 깊숙이 뿌리박힌 凡是派 인물들은 변하지 않아 양자간의 갈등은 깊어만갔다。

군원로인 葉劍英을 중심으로 군사위 상무위원 許世友, 福州군구 사령원 楊成武, 광주군구 사령원 吳克華, 南京군구 사령원 聶鳳智, 瀋陽군구 사령원 李德生등 지방대군구 간부들이 反鄧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풍문은 파다했다。

군부의 반발은 작년가을 4인방재판이 준비되고 毛澤東격하 움직임이 활발해진 파동시에 더욱 거세어졌다。 재판이 진행되는동안 전국곳곳에서 폭탄이 터지는등 파괴행위도 있었다。 현중공체제상 폭탄의 출처는 軍일수밖에 없으므로 군부의 소행으로 추측될수밖에 없었다。

군부가 毛澤東재평가에 대해 또한번 반발하고 나선것은 지난봄 일어났던 白樺사건때다。 白樺는 「苦戀」이라는 제목의 시나리오에서 太陽에 총을 쏘는 주인공을 그렸는데 이것이 모택동을 비난하는 것이라해서 解放軍報를 비롯해 軍部가 들고 일어난것이다。 白樺사건은 결국 苦戀의 상영을 취소하고 원작을 22군데나 고치는 선에서 일단락되었지만 군부내의 毛澤東추종세력이 만만치않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군부의 뿌리깊은 親毛세력과함께 胡―趙체제를 괴롭힐 것은 중공사회에 팽배하고있는 무관심주의다。

중공은 현재 커다란 신념의 위기에 봉착하고있다。 중공청년들은 ▲마르크스주의에대한 불신 ▲당원및 간부들에대한 불신 ▲현대화정책 실현가능성에대한 불신등 「3不信」에 빠져있다。 과거의 과잉고용체제가 무너지면서 늘어나기 시작한 중공의 실업청년들은 무작정 北京·上海등 도시로 올라와 거리를 배회하며 각종범죄와 사회혼란을 야기시키고있다。 여기에 현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합세한다。

鄧小平도 지난2월 일본방문단을 만난자리에서 『중공내부에 비판세력들이 존재하는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부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10억인구에 비해 하찮은것』이라고 말해 사회불안이 상당함을 비쳤었다。

결국 中共黨은 신념의 위기를 타개하기위해 정신교육을 강조하면서 『雷鋒을 본받자』는등 毛澤東구호를 다시 끌어내는 자가당착에 빠지기도했다。

지난2월 홍콩의 한신문이 보도한 중공대학생들의 여론조사결과는 胡―趙체제의 앞날이 다난할을 암시한다。

홍콩의 工商日報는 上海 復旦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결과 『10년내에 文革세력이 다시득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반수이상이 「가능할것」이라고 답했으며 39%가 「도저히 막을수없을것」이라고 한반면 「불가능하다」는 대답은 4%에불과했다고 보도했다。 【朴永補기자】 <끝>

◇예편군인들의 復權데모 지난 1966~77 文革기간중 강제예편당했던 약50명의 前職군인들이 3일北京시내 紫金城에서 복권을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있다。 【北京4일UPI聯合=聯合】

◇오열하는 라자이首相 알리·라자이이란수상이 3일 지난 5월28일 회교공화당 당사폭발사고로 폭사한 베헤슈티 대법원장등 이란 고위회교 성직자들의 합동장례식에서 오열하고있다。

美日「蘇위협」에 認識같아

防衛力증강 美側에 다짐

日防衛廳장관 워싱턴會見

【東京3日=聯合】 오오무라·죠오지(大村襄治)일본방위청장관은 3일상오 소련의 대서방위협에 관한 미·일간의 인식의 차가 없다고 강조하고 소련의 군사력증강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방위력정비를 진행해 나갈 생각임을 미국측에 천명했다고 3일하오 일본신문들이 워싱턴발로 일제히 1면톱기사로 보도했다。

보도들에 따르면 오오무라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소련의 군사력이 자위를 위한 규모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부정할수 없으며 이것을 방치하면 자유세계를 지킬수 없게 된다』고 지적、이점에 관해 미국과 대소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오오무라장관은 이어 이제까지 소련을 『잠재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던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소련의 위협』을 대상으로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해나갈것임을 다짐했다。

오오무라장관은 日本의 방위력증강과 관련、『방위계획대강수준을 조기에 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굳게 알게됐다』고 강조하면서 83~87년사이의 새로운 5개년방위계획기간중 45기구입예정인 P3C對잠수함초계기를 대폭 추가도입할 의사임을 밝혔다고 日本신문들은 전했다。

華國鋒 6中全서 自我비판

76년 反政폭동彈壓등 관련

【東京3日AFP=聯合】 前중공당주석 華國鋒은 지난76년4월 北京시내 天安門광장에서 벌어진 反政폭동사건에대한 탄압과 관련한 그의 역할에 관해 지난달 29일 폐막된 제11기당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6中全會)에서 자아비판을 했었다고 일본共同통신이 3일 北京의 정통한 중공소식통들을 인용、보도했다。

이통신은 華가 6中全會에서 행한 자아비판을 통해 그가 故黨主席 毛澤東의 모든 사상과 가르침을 사회적·정치적현실과 관련하여 재검토함이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또한 지난 66~76년간의 문화혁명기간중 실각된 지도자들에 대한 복권작업을 지연시켰음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中共 統合위해 非平和的수단 不辭

美의 臺灣정책 警告

【北京3日UPI=聯合】 중공은 3일 미국의 계속적인 對臺灣군사·경제지원을 용인할 생각이 없으며 미국이 중공과 대만간의 평화적 타결에 장애가 되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중공은 대만을 통합하기위해 「非평화적수단」을 사용할지도모른다고 경고했다。

관영新華社통신은 이날 중공의 季刊「국제문제」를 인용、이같이 경고하고 앞으로의 미·중공관계는 순전히 미국측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통신은 일부 미국인들이 ▲미국이 중공에 제공하는 전략적·경제적지원 ▲소련의 위협과 관련한 중공의 대미의존 ▲4개 현대화계획실현을 위한 미국으로부터의 지원필요성을 이유로 중공이 미·대만관계를 묵인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2개의 중국」정책을 공공연히 지지하고 있으나 이는 역사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데서 나온 커다란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趙紫陽 9월訪日

【東京4日=聯合】 중공의 趙紫陽수상(당부주석)이 오는9월 일본정부초청으로 일본을 공식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외무성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필리핀 首相 비라타 指名

이멜다옹립 反對

【마닐라3日AP=聯合】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3일 부인 이멜다여사를 새수상에 옹립하려던 친여인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뿌리치고 전문기술관료출신의 세사르·비라타財政相(50)을 차기 수상에 지명했다。

東·西獨 大使회담

軍縮계속키로 合意

【베를린3日AP=聯合】 동독과 서독은 3일 동베를린에서 양국대사회담을 개최、군축문제에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이같은 협의를 계속키로 합의했다고 서독정부소식통들이 밝혔다。

蘇外相 바르샤바着

波정치국원과 두차례會談

폴란드 共産黨대회 앞두고

【바르샤바4日UPI=聯合】 폴란드공산당대회개막을 10여일 앞두고 3일 바르샤바에도착한 蘇聯外相 안드레이 그로미코는 도착즉시 폴란드黨제1서기 스타니스와프·카니아와 양국공동관심사를 협의한데이어 4일에는 폴란드정치국원들과 2차례에걸쳐 會談을갖고 현폴란드정세의 해결방안을 집중 협의한다。

오는 14일에열리는 폴란드공산당대회에서는 黨제1서기 카니아의 정치적운명을 좌우하고 당중앙위원을 새로선출하는등 당운영에관한 광범위한 개편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미코가 이번방문기간중 카니아에 도전하고 있는 親蘇강경인사들에게 어떤 언질을 주고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카니아는 이번당대회에서 자신의위치를 강화하면서 자신의 개혁정책을지지하고있는 중도온건주의자들을 대거 당중앙위원으로천거할 것으로 보인다。

波、대폭 改閣단행

閣僚8명 解任·4명 轉補

【바르샤바3日UPI聯合=聯合】 야루젤스키 폴란드수상겸 국방상은 2일 2차대전후 최악의상태에 빠져있는 현폴란드경제위기를 해소키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월의 그의 수상취임후 최대규모의 정부조직개편및 개각을단행、특히 경제관련부서를 일부통폐합하고 일부는분리시켰다。

야루젤스키 수상은 폴란드경제난국타개 방안을 숙의키위해 소집된 2일간의 국회임시회의 최종일인 이날 전국TV중계리에행한 연설에서 8개부서의 장관을 해임、새로 5명의각료를 입명하고 다른 4명의각료를 이동시켰다고 발표했다。

야루젤스키수상은 해임된 8명의 장관들이 원자력성、기계성、화학산업성、중기계·농기계성、식량성및 고등교육·과학·기술성장관들과 1명의 경제개혁담당무임소장관이라고 밝혔다。

메아리

平生교육

「교육은 생명과 자유 다음으로 인류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한다。 이 축복은 이제 학교안의 학생에게만 내려지는것은 아니다。

오늘의 교육은 국민학교에서 대학원까지의 학교 울타리안에서만「孤高」의 위치를 지켜갈수 없다。 60년대부터 평생교육의 개념이 나타나면서 교육의 外延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삶의 全般으로 확대되었다。

현대의 지식량은 하루가 다르게 폭발적인 급증을 보이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지난 1940년대의 인류가 가졌던 지식량이 70년대에 와선 7배나 늘어난 것으로 추산한다。

이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서적출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1400년께부터 1800년대에이른 약 5백년간 세계에서 출간된 책을 3천만종으로 잡는다면 1950~75년 불과 25년사이에 같은 분량이 쏟아져 나왔다。

어제 배운 지식이 오늘엔 노폐물로 퇴적되어 버린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론 현대의 각종 도전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高學歷과 高學力이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부단한 지식의 신진대사를 위해서도 평생교육의 필요성은 싹튼다。

우리 주변엔 평생교육에 대한 자각의 눈을 뜬 「제3의 교실」이 많다。 여기 참가하는 일반인들의 열의도 뜨겁다。 박물관대학의 경우만 해도 1년마다 2백명정도 모집하는 이 강좌엔 평균 5대1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든다고한다。 생활개선으로「여가」가 늘어난 주부들의 참여도가 두드러진다。

胎敎에서 노인교육까지를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가정·직장에서 이뤄지는 교육을 수평으로 통합하려는 것이 평생교육의 이념이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이 열망을 수용하기엔 그 여건이 아직 요람에서 잠자고있는 형편이다。

한국평생교육기구는 어제(4일) 「한국평생교육의 좌표」에관한 강연회를열고 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촉구했다。 사회교육 관련 법규제정과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임을 이강연회는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오늘의 역사 <5일>

▲美공군 대동강철교 폭파 (1950)
▲美 네바다서 核實驗 (1957)
▲原子力院, 원자로도입 (1959)
▲알제리, 부메디엔 首相에 취임 (1965)
▲中共 대륙간탄도탄 제작성공 (1968)
▲봉고 가봉 대통령내한 (1975)
▲이란 철강등 기간산업 國有化 (1979)

意安飯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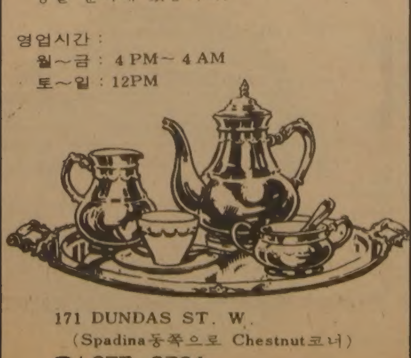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 4 AM
토~일 : 12PM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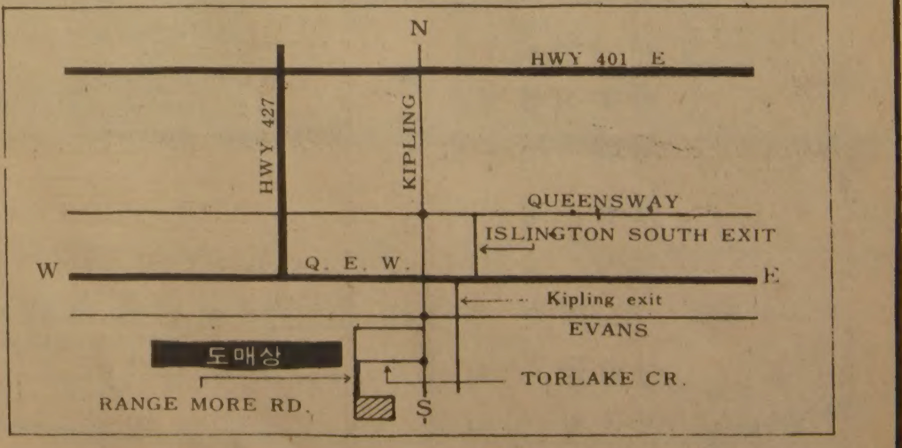
미국 이민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 이민쿼터제
● 노동허가법
● 학생비자발급
● 그외의 문제등, 또한 지금 어떠한 종류등 이민수속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으신분

위와 같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시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화나 편지를 주시면 뉴욕에서 다년간 이민법에 종사하신 미국인 변호사 ROGER C. ALGASE(알게이즈 씨)께서 좀더 알기쉽고, 자세히 성의껏 답해 드립니다.
사무실엔 항상 한국인 보조원이 계시어 불편없이 도와드립니다.

연락번호 (212) 762-5100
연락주소 136-31 ROOSEVELT AVE. Suite #2 FLUSHING, N. Y. 11354

한 인 연 합 상 사



★주문전화 : 251-6578 MISS 정
27 RANGEMORE RD. TORONTO. ONT.
영업시간 : 월~토 8시~6시30분
※토요일 오후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無常을 넘어 살다간 사랑의 法官

死刑囚 찾아다니며 설득…信心심어 청렴한 生活속에도 私費로 冊차입

四人들의 代父 金洪燮판사

韓国庶民列伝 — 激動의 近代를 살다간 偉大한 한국人들

현실의 법은 어떻게 할수 없어, 그는 그 법을 집행하면서 사형수들에 대한 종교적 구원에 진력했다. 그가 바쁜 일과의 틈을타서 사형수들을 옥중으로 찾아다니며 그들의 정신적인 아버지(代父)가 되었던 일은 세상에 너무나 잘 알려져있다. 그는 월급과 고료를 털어 囚人들에게 종교서적을 차입하는데 승은보답을 찾았다.

그가 죽기전에 남긴 수상…

◇「無常을 넘어서」살다간 金洪燮. 그는 생전에 가족이 묻힐 묘지를 마련해놓고 「먼지는 제가 생겨난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를 주신 하느님께로 돌아갈지니라」라고 새겼었다.

링컨傳記에 감명…苦學으로 辯試합격 늘 人間이人間을 재판할수있나 고민

후배들에 "하나의生命은 곧 法官의生命" 강조

그를 庶民이라 부르기에는 그의 생전의 직위가 너무나 顯著한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분명한 庶民인것은 그가 수많은 死刑囚들의 친구였던것으로 증명이 된다. 그는 사형제도의 폐지를주장한 범조인이었다.

진북 金堤郡 金山面 院坪(1915~1965년)이다. 20세 되던해 全州로 나가게된다.

─생명의 본원에 대해 생각하여 본적이 있읍니까?

▲전혀 없는것은아닙니다.

─앞으로 信心을 가져볼 의향은?

▲글쎄요, 이런 환경에서…구차스럽지 않겠읍니까.

나의 이력서

잣나무 털녹병

玄信圭 (74)

世界 여러關係學會서 病因규명 30年

◇69년11월8일 한국육종학회창립총회를 갖고 회원일동이 한자리에 모였다. 筆者는 이학회의 회장직을 10여년맡고있다가 올해 咸英秀씨에게 회장직을 넘겼다.

한국에도 번져…中間寄主 까치밥나무임을 발견

69년은 국내외에 걸쳐 유난히도 학술회의와 행사가 많았던 해였던 것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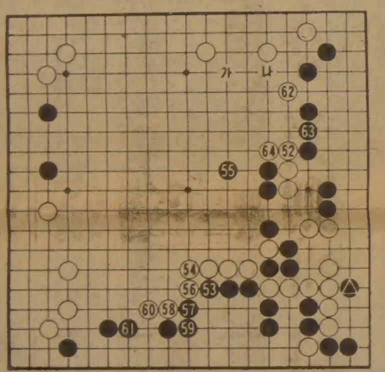
서울서 처음열린 FAO亞太지역 임업회의를 비롯하여 6월에 東京서 열린 국제유전학회, 8월 워싱턴서 열린 AFO세계임목육종회의, 11월 한국종학회의창설등 모두가 기록에 남을만한 굵직한 회의 행사였다.

第12期 名人戰 挑戰5番棋

第2局 第6譜 52~64 (각 5시간 덤 5집반)

白(名人) 曺薰鉉〈1敗〉

黑(挑戰者) 徐奉洙〈1勝〉



공격과 수비의 요령

〔李忠雨기자〕

◇趙永植박사

文化短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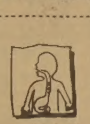
趙永植박사에 世界平和大賞

趙永植박사(慶熙大재단이사장)가 4일까지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시서 열린 제6차 세계대학총장회의(IAUP)에서 교육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한 공으로 세계평화대상을 받았다.

李判石 동양화전 내일까지 德壽宮

現代人의 健康百科

食道炎



분문기능 弱化로 胃液등 넘쳐 염증

식도는 구강과 위를 연결하는 하나의 관(管)으로서 음식물의 수송로가 되며 구강에서 씹어삼킨 음식물이나 수분을 위에 보내는 운반의 기능을 갖고 있다.

朴炅南 (醫博·漢陽大 內科교수)

모두 좋이 외의 生 <140>

趙善作 作

禹慶熙 畵

그림자 놀이 ⑲

T. P. ADVERTISING GROUP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간판·윈도우 싸인·쇼-카드전문
●그 래 픽 디자인부 : 신문광고·상업디자인·비지네스및 개인경함 회사나 단체 마-크·각종포스터및 팜프렛
●인 쇄 부 : 도서(책자)·편집및 출판(광고지 포함)
637A BLOOR ST. W. TORONTO
☎ 535-0647, 0545
대표 송 관 헌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SHANGHAI RESTAURANT
•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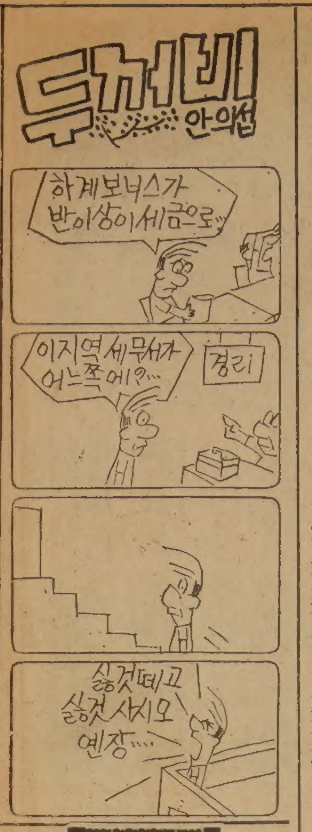
각종 한약재 도매
보약조제및 상담
●우황청심환 ●우황 ●사향 ●웅담
●녹용 ●정주사 ●해구편
중국의사의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시간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偉信公司 KINGS IMPORTS
428 DUNDAS ST. W. TOR.
☎ : (416) 977-9818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밤12시 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한 국 관
냉면·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 문
대소 200석 완비
OPEN :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TORONTO
536-0290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영업시간 : 월~목 · 9 : 30AM~7AM
금 · 9 : 30AM~8PM
토 · 9 : 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이번엔 돌로쳐 殺人

佛유학 日청년 아테네서

유럽日人쇼크…現地신문 1면톱처리

【東京4日=聯】파리에서의엽기적 여대생토막살인 식인사건에 이어 다시 파리유학생이 그리스수도 아테네에서 발작적으로 지나가는 차에 돌을 던지고 운전하고 있던 그리스공장경영자를 돌로쳐 죽인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질러 유럽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일본신문들이 파리발로 4일 보도 했다。일본 신문보도에 의하면 범행을 저지른 유학생은 지난 1월에 프랑스에온 오오가다·갱 (21) 이라는 청년으로 그리스를 여행중 3일 새벽 5시쯤 발작을 일으켜 지나가는 차들에게 돌을 던져 그중 그리스공장 경영자 니콜라스·알메니씨 (50) 가 운전하고가던차가 정차, 시비가 붙자 길옆에 놓여있던 크기 30㎝의 돌을집어 니콜라스씨의 머리를 난타,참혹하게 죽였다는 것이다。현지신문들은 파리에서의 엽기적 살인사건에 이은 일본 유학생의 끔찍한 살인사건에 크게 충격, 모두1면 머리기사로보도, 파문을 던지고있다고 일본신문들이 현지발로 전했다。

대학에 運營종합評價團파견

文敎部 여름방학부터 「敎育개혁사업」 실태파악 위해

문교부는 지난해 단행된 7·30대학교육개혁사업이대학현장에서 어떻게 수용,실시되고 있는가를 조사평가하기위해 올하기방학개시와 동시에 전국주요대학에 대학운영종합평가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번 대학평가는 종래의 실험대학선정과 이들 대학의 운영개선을 위한 평가작업과는 달리 10만이상 불어난 대학인구의 급격한 증가、졸업정원제실시등 새 대학제도도입에 따른 학사전반의 문제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문교부는 이에 따라 이미 9명의 대학교수로 구성된 대학운영종합평가단을 구성, 4일 첫회합을 열고 대학의 평가기준과 방법등에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했다。

鄭泰秀문교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학의평가 분야를 ▲교수요원의 확보▲강의실·도서관·기숙사등 시설확충정도▲학사및 사무기구의 타당성및 개선점▲졸업정원제、전일제수업의 운영실태▲교수·학생의 복지시설 확보여부등에 집중시키라고 말하고 『현장의 문젯점을 구체적으로 점검、그결과를 앞으로의 대학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金鍾寅대학교육 국장은 이번 대학평가작업이 7·30교육 혁신 이후 대학내에서 일어나고있는 변화들을 파악하고 대학별 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자료를 얻자는데 그 목표가 있다고 말하고 대학평가는 점수제가 아니고 대학개혁의 추진정도에 따라 평가분야를 종합, 대학들을 상·중·하 3群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誤發彈에 주민貫通

순찰警官,종업원과 농담하다

3일밤 9시50분께 서울龍山區元曉路4街124의2한강사 배터리상회에서 龍山경찰서 元曉路4街 파출소소속 金英旭경장(29)이 38구경 리볼버권총을 장난삼아 만지다가 오발、옆에있던 한강사종업원 尹南燮씨 (23) 가 입좌측언저리를 관통당해 그자리에서 숨졌다。

金경장은 이날 당직근무중 파출소에서 30여m떨어진 한강사에들러 장전되지않은 권총을 尹군등 종업원 3명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등 장난을 치다 숨진 尹군이 『빈총을 맞으면 재수없다는데 총알도없는 총을갖고다니느냐』고 놀리자 실탄1발을장전한후 안전장치가없는 권총을 1m거리에서 尹군에게겨누다 우발적으로 방아쇠를당겨 사고를 냈다。

金경장은 이날 밤11시부터 야간 초소근무를 하게돼있어 파출소 무기고에서 권총과실탄 6발을 분리,수령한뒤 龍山경찰서로 가던 중이었다。龍山경찰서는 4일 金경장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구속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83 2361

不法무기류 10만點 회수

정부가 지난5、6월 2개월간 실시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중 총기류3천6백29점 도검8백15점 폭발물류 10만1천1백45점이 회수됐다。

潔白주장 목매自殺

關稅協 장치係長

지난2일 하오3시께 서울江西區傍花洞390 개화산중턱에서 한국관세협회 金浦사무소 장치계장 許救씨 (55·江西區空港洞60의121) 가 6m 높이의 소나무 가지에 목을매 숨져 있는 것을 지나던 具光瑞씨 (49·江西區傍花1洞428) 가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의하면 許씨는 지난 79년8월 관세협회 金浦사무소창구에 보관중이던 은만희씨 (35)의 4백만원짜리 다이아반지가 없어진데 대해 관세청과 협회에서 책임을 묻자 이를 비관해왔다는 것이다。

분실사고당시 창고책임자였던 金義泰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고 金씨가 판재능력이없어 협회측이 다이어값을 물어주는것으로 일단락 됐으나지난5월관세청이이사건에대해 분실사건의 책임은 당시장치계장으로창고책임자였던 許씨에게 있으므로 許씨가 반지값4백만원、관세1백12만원등 모두 5백12만원을 변상하는것을 지시했었다는 것。

◇푸짐한선물 들고 "안녕히 계시이소" 亨道군이 퇴원하면서 전액무료로 심장과 눈수술을해준 漢陽大 의료진에게 손을흔들어 작별인사를 하고있다。오른쪽옆에 亨道군의 아버지 (右端) 와 교장선생님이 선물로받은 축구공을 들고있다。

거듭태어난 섬소년梁亨道군 어제退院

새心臟·새얼굴로 歸鄕

梁亨道군 (11) 이 4일 퇴원했다。지난5월24일 漢陽大병원에 입원한지 41일만에、심장수술을 받은지 30일만에 亨道군은 건강한모습으로 자랑스럽게 고향인 於義島로 돌아갔다。亨道군은 지난달29일 윗눈꺼풀이 아래로처진 선천성안검하수증 (先天性眼瞼下垂症) 의 교정수술도 받아 얼굴모습조차달라졌다。체중도 2㎏이나 늘어 25㎏이된이 「축복받은 소년」은 4일상오 눈수술이후 매고있던 두눈의 붕대중 왼쪽의 붕대를풀고 그동안 정들었던 병원관계자및 간호원누나들과 눈시울을 붉히면서 작별했다。이날하오 亨道군은 아버지 梁相俊씨와 柳교장선생님과함께 고속버스를타고 새희망에 부풀어 귀향길에 올랐다。亨道군의 가장 가까운소망은 학교를 다시 다니는것이다。

눈도手術、漢陽大병원서 섬에

샘솟는기쁨…生日도 退院日7월4일로

"꿈이뤄 은혜 갚을래요"

"또보고싶지만 病院선 만나지말자" 醫療陣도 전송

장기결석으로 인한 학업공백을 하루빨리 메우면서 3개월정도 보양을하면 다른어린이들보다 더 건강해질수있다는것。

그러나 가장 정확한 건강상태는 정기검진을 받은뒤가 될것이다。

亨道군은 당초 지난달27일 퇴원할 예정이었으나 漢陽大병원의 배려로 눈수술까지받게돼 퇴원이 1주일이나 늦춰졌다。안과 (과장 高忠濟·55) 팀은 亨道군의 두눈중에서도 특히 오른쪽눈의 윗꺼풀이 정상위치보다 내려와있기 대문에 시각기능에 장애를 주는것을 해소키 위해 지난달 29일 2시간30분동안의 전신마취를 통해 교정수술을 해주었다。

亨道군은퇴원하던날아직부기가 가시지않아 붕대두른얼굴인채로 병원장 金光會사 (59) 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웃병실의 환자·보호자들에게 깍듯이 인사를 차리고 그동안 서울어린이들로부터 받은 축구볼등 푸짐한 선물보따리를 챙긴뒤 병원을 나섰다。간호원누나들도 바쁜 일손을 잠시 멈추고 배웅나와 『또 보고싶지만 병원엔다시 오지않는 것이 좋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한달이넘도록 亨道군의 병실을지켰던 누나 李蓮양 (20) 의손을잡은 亨道군은 눈물을글썽거리며 『그만 들어가이소』라면서 석별의 인사를 연발했다。

병원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정도여서 아직퇴원하지 못하는 환자들은 亨道군을부러워하면서작별인사를했고외래환자들도금방亨道군을알아보고 격려해주었다。

金원장은 병원밖의 계단에까지나와 머리를 쓰다듬어주며『훌륭한 사람이되라』고당부하면서 아버지 梁씨에게도 『아들하나를 번섭치고 잘키우시라』고 했으며 梁씨는 『걱정마십시오』하며 굳은 악수를 나누기도했다。

柳교장은 亨道군에게 『유명해졌다고해서 교만해지면 안된다』고 스승답게 다짐을 받았고 亨道군은『알았어예』하고 힘차게 대답했다。

亨道군은 집에갈생각에 마음이들떠 쉴새없이 지껄이면서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곤했다。

병실의 환자들도 모두 창문을열고 『亨道야 잘가라』며 격려를해주었다。亨道군은 먼저있던 심장병수술환자들의 방인 1522호실에도들러『저 지금가예』라고 인사를하고 누나들을라 같은 병실에있던 아저씨에게 공중전화를걸어 인사를했다。亨道군은지금 오른쪽눈의 안대를 풀지않아 왼쪽눈만쓰고 있는데 아직 물체가 흐릿하게 보이지만 2주일후쯤이면 완전히 나아질 전망이다。그리고 얼굴도 훨씬 미남이 될것이다。

亨道군은수술받기전에결심했던 것처럼『앞으로 착하게 살아가겠다』면서『태극기를 꽂은 은배의 선장이되어 남들을 돕겠다』고 다시 다짐했다。또 이날하오 축구볼을 선물해준 漢陽국민학교에도 들러 인사를한뒤 하오4시고속버스에 올랐다。아버지 梁씨는 이번찬새 출발을 기념하기위해 亨道군의 생일인음력9월25일을 병원 퇴원일인 7월4일로 바꾸기로 했다。【任鎬淳기자】

◇4일하오 본사 편집국장실에서 있은 성금전달식。본사 權赫昇편집국장(左)이 아버지 梁相俊씨에게 1천만7천원을 전달했다。梁씨는 이중 5백만원을 심장재단기금으로 본사에 다시 기탁했다。가운데는 柳교장。

誠金중 5百만원 募金기탁

亨道군父親 本社전달 誠金1천만7천원받고

"심장병앓는 다른 어린이위해 써달라"

한국일보社는 4일 梁亨道군의 심장병치료를 위해 각계에서 보내온 성금1천만7천원을 亨道군의 아버지 梁相俊씨 (46) 에게 전달했다。

梁씨는 이성금중 5백만원을 떼어 亨道군과 같은 심장질환을 앓는 어린이를 구하기위해 곧 설립될 심장재단의 기금으로 써달라면서 한국일보社에 다시 기탁했다。

梁씨는또 나머지돈은 亨道군의 수술뒤 요양비와 於義국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亨道군에대한 그동안의 수술및 입원비는 일반수가로따져 모두 8백만원에이르렀으나 漢陽大 金蓮俊재단이사장및 병원측의 특별배려로 전액 무료로 처리됐다。

死亡·실종20명 豪雨피해 10億

중앙재해대책본부는 지난1일부터 내린 호우로 4일상오6시현재 사망12 실종8명등 20명의 인명피해와 1백89명의 이재민을냈고 총10억4천5백94만5천원의재산피해가발생했다고발표했다。

재해대책본부는 가옥2백32동이 전파·반파또는 침수되고 선박11척이 파괴 또는 유실됐고 농경지 침수및 매몰이 5천2백44정보,도로침수및 매몰이 41개소의 1천6백57m,하천·제방유실및 매몰이 60개소의 4천1백27m이었으며 66개소의 상·하수도및 수리시설과 1백54개소의 세멘울시설등이 침수 또는 매몰됐다고 밝혔다。

流星의 賦 <123>

李炳注作 李友範畵

亡兆의 日月 ⑨

동서의 싸움은 드디어 이전투구 (泥田鬪狗) 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전랑 윤현은 서인에 속하고, 전랑 김성일 (金誠一) 은 동인에 속했다。두 사람은 서로 의사가 맞지 않아 사사건건 충돌하기만 했다。윤현이 동인들의 공격목표가 되었다。

그 무렵 윤현의 숙부 윤두수、계부 (季父) 윤근수도 조정의 요로에 있어 삼윤 (三尹) 이란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들이 모두 서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동인들의 미움을 샀다。그러던차 삼윤 (三尹) 이 뇌물을 받았다는 풍문이 있었다。진도군수 이수 (李銖) 가 쌀을 실어다가 두수형제 (斗壽兄弟) 와 윤현에게 바쳤다는 것이다。김성일이 경연에서 발설했다。

『무안현감 전응정 (務安縣監 田應禎) 이 어느대관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하여 죄를 받고있는데 그후에도 뇌물을 주고받는 폐습이 그치지않고 있읍니다。이일은 실로 중요한 일로서 철저한 조치가있어야 할줄 아뢰옵니다』

『뇌물을 준자가 누구인가』

임금이 물었다。

『진도군수 이수입니다』

김성일이 부복하여 말했다。

대간 (臺諫) 이

『이수에겐 마땅히 죄를 주어야겠읍니다』

하고 아뢰었다。임금은 즉석에서 명했다。

『이수를 조옥 (詔獄) 에 가두고 국문하라』

이수는 두수의 외사촌 (外四寸) 이었다。김성일은 이수가 쌀 수백섬을 실어다 장차 삼윤 (三尹) 의 집에 주려고 배를 경강 (京江) 에 댄다는 말을 듣고 관속을보내 그 종적을 살피곤 삼윤의 죄를 탄핵하고 이수와 그 아우 치 (鎡) 를 옥에 가두고 심문하였던 것인데 수는 끝내 불복 (不服) 했다。

이렇게 해서 사건이 성립되지 않자 일부에서 김성일이 사건을 조작하여 삼윤을 모함하려고 했다는 비난이 일었다。한편 부제학 허엽이 뇌물을 준 자를 다스리고 뇌물을 받은 자를 다스리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서둘러 삼윤의 파직을 제의했지만 임금은 듣지 않았다。

고향에 내려가 있던 김계휘 (金繼輝) 가 이 소식을 듣고 급거 상경하여

『삼윤은 모두 어진선비로서 등용되어 별로 큰 과실이 없읍니다。그런데 지금 뇌물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보면 모략하는 자가 지어낸 말이라고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천천히 옥사 (獄事) 가 성립되는 것을 기다려 삼윤을 치죄 (治罪) 해도 늦지 않을것인데 먼저 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 막연히 치죄하기를 청한다는 것은 선비를 대우하는 도리가 아닙니다。삼윤의 출퇴 (出退) 를 가볍게 취급할 일이 아닙니다』

하고 자못 강경한 태도로 아뢰는데 말에 과격한 대목이 많았다。

그러자 사류들은 발끈했다。

『김계휘의 언사는 망국지언 (亡國之言) 이다』

하는 반발이었다。대간 (臺諫) 들은 피혐 (避嫌) 하여 물러나고 옥당 (玉堂) 에서 계휘를 탄핵했다。동시에 대사헌 박대립、대사간 이산해 (李山海)、장영 이발이 삼윤의 숨은 허물을 들추어내기 시작했다。

임금은 동인의 서인에 대한 공격도 옳지 못하고、김계휘가 지나치게 서인을 두둔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신앙전도집회>

한인교회에서는 7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김형석교수를 (연세대학교 : 철학)모시고 신앙전도집회로 모입니다. 모두 오셔서 신앙생활에 새로운 각오를 세우시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제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7월17일(금) 저녁7 : 30/요한복음(1, 1~13)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8일(토) 아침10/(강연)
세계속의 한국
저녁7 : 30/요한복음(3, 1~16)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인생
19일(일) 낮 12 : 30/누가(9, 57~62)
제자의 자격
저녁7 : 30/요한(21, 15~19)
우리의 조국과 영원한 하늘 나라

토론토한인교회

KOREAN METRO UNITED CHURCH
353 SHERBOURNE ST. TORONTO, ONTARIO M5A 2S3
TEL: 922-3863. 922-0605

李龍求 60kg級서 韓國新

全國力道 安智榮·申東澈·李相善도 聳上종목

제53회 전국역도 선수권대회 최종일 일반부경기가 4일 태릉선수촌서 진행되었다. 이날 60kg급 용상에서 李龍求(조폐공사)는 155·5kg을 들어 자신이 갖고있던 한국기록 155kg을 0·5kg 경신하고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李는 총계에서도 255·5kg을 기록,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했다. 또한 한국역도의 간판스타인 安智榮(현대건설)은 1백kg급 인상에서 151kg을 들어 지난 4월 선발전에서 세웠던 자신의 한국기록 150·5kg을 경신하고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82·5kg급 인상에서는 한국체대의 申東澈은 번의시기서 138kg을 들어 77년 李春植이 수립했던 한국기록 137·5kg을 4년만에 0·5kg경신하고 한국신기록을 세워 역시 유망주로 클로즈업되었다. 한편 67·5kg급 인상에서 李相善(조폐공사)은 122·5kg을 들어 종전 120kg을 2·5kg 오버하여 한국주니어신기록을 작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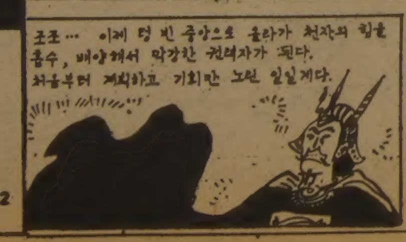
◇최종일기록(종목별1위) ▲52kg급인상=박용복(성창그룹) 90kg ▲동용상=김석태 117·5kg(대회신·종전115kg) ▲동총계=박용복 202·5kg ▲56kg급 인상=김칠봉(준설공사) 100kg ▲동용상=김칠봉 125kg ▲동총계=김칠봉 225kg ▲60kg급인상=이용군(성창그룹) 112·5kg ▲동용상=이용구(조폐공사) 155·5kg(한국신·종전155kg) ▲동총계=이용구 255·5kg(대회신·종전250kg)

◇헤딩슛… 慶熙高 朴基泰이 利川農 GK李周永의 펀칭보다 한발앞서 헤딩슛을시도했으나 볼은 빗나갔다.

배구코치 3명 出國 카타르國 초청받아

秦準鐸(前종합화학)·朴株(前유봉여고)·姜吉龍(前도로공사)등 3명의 배구코치가 카타르배구대표및 주니어대표팀을 지도하기위해 4일하오 KAL편으로 출국했다.

◁알림▷ 애독자들의 절찬리에 연재중인 고우영 만화「삼국지」! 지난 4일자(10면) 제170회분. 일부지역에는 인쇄가 선명치 못한 것이 나가 다시 실립니다.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緖戰부터 優勝후보 맞붙어

鳳凰大旗高校야구 對陣추첨에 喜悲가…

決勝방불할 善隣·慶南戰

光州一은 東山高와 한판

1~2회전 鄕土팀 충돌피해 추첨

熱夏의 그라운드를 수놓을 白球의 대제전 제11회 鳳凰大旗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는 대진추첨부터 숨막히는 긴장이 연속되는 한편의 드라마였다. 환호와 탄성이 엇갈리는 가운데 진행된 추첨결과 서울勢를 대표하는 善隣商高가 전통의 강호 慶南高와, 서울의 상위랭커인 中央高가 忠南을 이끌어가는 大田高와 각각 1회전에서 대결케되었다.

◇緊張과 安堵가 엇갈리며 4일 하오 한국일보 13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11회 鳳凰大旗쟁탈 전국야구대회 대진추첨식.

또 光州一高는 1회전에서 東山高와, 2회전에서는 서울의 강자 信一高와 싸우게 됐으며, 善隣商高도 慶南高를 이길경우 복병 光州眞興高와 맞붙게돼 초반부터 격전이 예상되고있다. 善隣商高는 금년시즌 첫대회인 대통령기대회 1회전에서 뜻밖에도 왼손잡이 에이스 金正洙가 활약하는 眞興高에 2-0으로 완패, 서울의 야구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었다. 대통령기 우승팀인 群山商高는 추첨운으로 2회전에 진출, 大邱商高·京東高승자와 첫판을 가지며, 청룡기 우승팀인 慶北高도 부전승으로 2회전에 진출, 大田高·中央高 승자와 싸우게된다. 지난해 鳳凰大旗의 주인공인 天安北一高도 대진운이 좋아 2회전에서 江陵高·德壽商高승자와 16강 진출권을 다투게된다. 16강을 겨루는 초반 1·2회전 추첨에서는 같은지역팀끼리의 충돌을 막기위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울, 경기·강원도의 5개지역단위로 나뉘어 추첨을 가졌다.

경기진행은 5회를 넘긴경기는 정식경기로 간주되며 1·2·3회전경기에는 5·6회 10점, 7·8회 7점 이상점차의 콜드·게임이 적용된다.

연장전은 12회까지로 하며 3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원칙 없게되었다. 타격상은 4強진출팀에 한해서, 미기·최다타점상, 도루상은 1·2회전출전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사용구는 국산 미즈노공.

強者끼리…짓궂은 추첨운

누가 먼저 16強의 자리를 점령하느냐. 매회 대진추첨의 독특한 경기운영 방식을 택하고있는 鳳凰大旗대회서는 추첨자체가 우승으로 향하는 중요한싸움이 되고있다. 16強을 결정하는 1·2회전 추첨에서도 의외로 손쉬운 상대와만난 팀들이 있는가 하면 1·2회전 모두 총력을 기울여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강자들의 틈바구니에 낀 팀들도 적지않다.

16개의 블록가운데 가장 박진감넘치는 격전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善隣商·慶南高—眞興高조. 光州一高·東山高—信一高조, 光州商高·馬山高—大光高조, 世光高·明知高—馬山商高조 등이다.

善隣商은 金健友·朴魯俊 등 고교야구스타들을 거느린 강호이지만 慶南高의 전통과 저력을 얕볼수는 없다. 더우기 2회전서 만날 眞興高는 대통령기 대회서 선풍을 일으킨 金正洙가 마운드에 버티고있다.

光州一高역시 車東哲등 수준급투수를 가지고 있어 16強진출에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인다. 信一高는 閔庚三, 張光一, 徐孝仁, 李載弘등으로 짜임새있는 팀웍을 갖춘 팀이어서 접전을 벌일것으로 보인다. 청룡기 우승팀 慶北高도 中央·大田등 이름에 비해 전력이 다소 떨어지는 팀들과 싸우게되 16強진출이 낙관된다.

群山商은 운좋아 16強무난

慶北·天安北一도 初盤순탄

대통령기를 차지했던 群山商高는 趙啓顯·林東求등 우수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어 무난히 16強진출이 예상된다. 지난해 우승팀 天安北一은 약세의 江陵·德壽商승자와 겨루게되어 역시 순조로운 출발을 할것으로 보인다.

창단이후 첫선을 보이는 浦鐵工高는 4개팀중에서는 1회전서 東大門高와, 2회전서 仁川高와 선전할것으로 기대된다.

야구인들은 光州商, 培文 또는 釜山商, 群山商, 在日同胞 또는 培材高, 大邱商, 世光高, 北一高, 光州一 또는 信一, 淸州, 仁川, 培明, 慶北, 釜山, 善隣商, 公州, 沖岩 또는 徽文을 각 블록에서 16強의 자리에 오를 가장 유력한 팀들로 점치고있다.

【方錫輔기자】

誠信、培聖이겨 1승

高校올스타籠球 徽文도 弘大附高에

제1회 서울시 농구협회장기쟁탈 남녀고교 올스타전이 4일 장충체육관에서속행, 여고부 리그에서 誠信올스타는 培聖올스타를 66-63으로꺾고 1승을 기록했다. 誠信은 車善裕·朴月奎 두장신을 번갈아 기용하고 李明照·金蓮姬의 슛으로, 골게터 朴英愛가 4반칙을 당해 플레이가 위축된 培聖올스타에 낙승했다.

한편 남고부 준결승서 徽文올스타는 吳世雄·張奎學의 분전으로 郭長錫이 고군분투한 弘大附高 올스타를 77-67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이날 誠信올스타와 培聖올스타의 대전서는 멤버기용폭이 넓은 誠信이 초반부터 기선을 잡았다. 誠信은 車善裕이 리바운드와 골밑슛에서 활약하고 李明照의 외곽슛이 호조를 보였다. 培聖은 朴英愛가 슛을 터뜨리며 분전했다. 宋美敏이 朴의 공격을 도와주었지만 고루 슛을 날리는 誠信에 전반내내 뒤졌다.

후반들어 培聖은 誠信의 두차례에 걸친 잇단패스미스에 편승, 宋美敏의슛으로 41-40으로 단한차례 전세를뒤집었다. 그러나 培聖은 朴月奎, 車善裕두장신의 더블 포스트플레이와 姜京順의 슛으로 培聖의 추격을 봉쇄했다.

◇제2일 전적
▲남고 준준결승
휘문올스타 77 (28-49, 33-34) 67 홍익올스타
▲여고부리그
성신올스타 66 (33-33, 33-30) 63 배성올스타
(1승) (1승1패)

알렉산더教授 체육教師 이론교육

체육회는 3일 美國플로리다大 해럴드·알렉산더 교수를 초청, 오는 8월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 초중고 체육교사들에게 체육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강의하기로 했다. 알렉산더교수는 韓國體大 학생들에게도 강연하고 국내대학의 체육교수들과도 좌담회를 갖는다.

臺灣, 홍콩大破

존즈컵國際농구

【臺北3日AP=聯合】 2일밤 臺北의 청화경기장서 벌어진 제5회 존즈·컵 쟁탈국제농구대회 이틀째 경기에서 西獨과 네덜란드 自由中國청팀이 각각 승리했다. 2일밤 臺北의 청화경기장에서 벌어진 이틀째 경기에서 西獨은 스웨덴을 69-64로, 네덜란드는 英國을 44-34로, 自由中國청팀은 홍콩을 91-40으로 각각 눌렀다. 韓國팀은 이날 경기가 없었다.

◇이틀째 전적
西獨 69-64 스웨덴
네덜란드 44-34 英國
自由中國청팀 91-40 홍콩

매켄로-플레잉組우승

女單선 에버트 3번째로

윔블던테니스 매켄로는 罰金투성이

【윔블던3日UPI=聯合】 윔블던 테니스대회 남자복식 결승서 美國의 존·매켄로, 피터·플레밍組가 같은 美國의 봅·루츠, 스탠·스미드組를 6-4, 6-4, 6-4로 완파, 79년도우승에 이어 다시 복식타이틀을 차지했다.

봅·루츠, 스탠·스미드組는 남자복식준결승에서 지난해 우승팀인 濠洲의 폴·맥나미, 피터·맥나마라組를 격파, 지난해결승에서의 패배를 설욕했으나 3일 결승에서 존·매켄로, 피터·플레밍組에 완패, 준우승에 머물렀다.

복식우승자 매켄로는 남자단식 첫경기에서의 불손행위로 1천5백달러의 벌금조치를 받은데 이어 지난1일 복식경기에서의 난폭한 행동때문에 3일 다시7백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에버트는 윔블던대회에서 지난74, 76년 두차례 우승한바있으며 그이후 지난3년간 계속 결승에 진출했으나 준우승에 머물렀었다. 만들리코바는 이날 에버트에게 패배함으로써 그랜드·슬램의 영광을 놓쳤다. 만들리코바는 지난해12월 濠洲오픈테니스와 지난달 프랑스오픈테니스대회에서 우승했었다. 【外信=聯合】

◇윔블던 테니스대회 여자단식 결승전서 만들리코바를 물리치고 우승한 크리스·에버트·로이드가 우승트로피를 높이 쳐들고 있다. 【윔블던 3日AP電送=聯合】

在美 한인體育大會 LA서 5百명參加

在美교포들의 스포츠제전인 제1회 在美韓國人체육대회가 체육회 在美지부주최로 오는11, 12양일간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다. 이번대회의 경기종목은 육상·수영·축구·테니스·탁구·배구·승마·태권도등 8개종목으로 5백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각주대항으로 열리는 이번대회의 입상팀에게는 대한체육회장의 컵이 주어진다.

한편 朱璐烽체육회 사무총장이 曺相鎬체육회장을 대리하여 이체전에 참석키 위해 4일하오 출국했다.

成頭好 준결에

學生복싱

제31회 전국학생 아마복싱선수권대회 4일째경기가 4일 仁川실내체육관에서속행, 총65게임이 벌어져 고등부준준결승및 중등부 준결승전이 진행되었다. 이날 중등부코크급에서 金용삼(대경중)은 송청현(여수중)과 대결, 2회1분5초만에 KO승, 결승에 진출했다. 같은급의 金완석(불광중)도 김성군(영도중)에 3회1분44초만에 RSC승으로 승리, 金용삼과 결승서 대결케됐다.

馬山工·慶熙·全南體高 8強에

馬山工·慶熙高·全南體高가 8강대열에 합류했다. 제14회 대통령금배쟁탈 전국고교축구대회는 강우로 이틀간의 휴식끝에 4일 효창운동장서 대회 8일째 경기를 속행, 馬山工은 78년대회 우승팀인 강호東亞高와 맞서 1-1로 비긴뒤, 승부킥서 4-3으로 신승, 8강에 올랐다. 이날 금년도 서울시종별선수권대회 우승팀인 慶熙高는 팀창단 6개월의 신예 利川農과 0-0 무승부를 기록, 승부킥서 6-5로 힘겹게 이겨 3회전 관문을 통과했다. 全南體高가 후반22분 金平中의 30m장거리슛으로 大倫高를 1-0으로 물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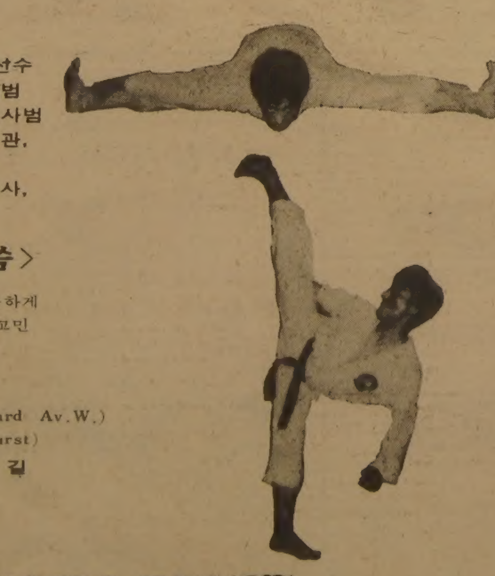
慶熙高는 전후반 11개의 슈팅을 날리며 利川農을 압도해나갔으나 문전 볼처리가 느리고 치밀하지못해 한골도 넣지못하고 승부킥에 가까스로 승리를 잡았다.

이대회 2회전서 지난해 우승팀 大田商을 물리친 利川農은 거의 수비에 치중하며 버티었으며 GK李周永이 여러차례 선방, 실점위기를 벗어났다. 馬山工은 전반 15분 榮海容이 徐庚祚의 도움을 받아 헤딩슛으로 1점을 뽑아 1-0으로 앞서나가다가 후반 23분 金宗汝에게 동점골을 내주었다.

東亞高는 승부킥에 들어가 마지막 키커인 孔林植이 실축, 왼쪽 골포스트밖으로 볼을 빠뜨려 분패했다.

◇제8일전적
▲3회전
마산공고 1 (1-0, 0-1) 1 동아고 <승부킥 4-3>
경희고 0 (0-0, 0-0) 0 이천농 <승부킥 6-5>
전남체고 1 (1-0, 0-0) 0 대륜고

화랑 태권도학교
서 정 길(7단)
●전 한양대 태권도 대표선수
●전 공군첩보요원 지도사범
●전 송무관 중앙도장수석사범
●전직 대통령경호실 경호관, 경호요원 지도사범
●현 카나다태권도협회 이사, 한인태권도협회 부회장
<초대의 말씀>
금번 저희 화랑태권도장을 개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교민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7월10일(금) 오후8시
장소 : 화랑태권도장(676 Sheppard Av.W.) (one block west of Bathurst)
사범 서 정 길
☎ : 630-3095



676 SHEPPARD AVE. W. (1 BLOCK W. OF BATHURST)

본社特約·連載漫畵

블론디 딘·영 作

"여보, 당신 돈 좀 줘 봐요."

"당신 주려고 산 이 새지갑에 그돈을 넣으려고요." "거참 좋은 생각이야"

"5달러는 제 몫이에요." "무슨 몫이야?"

"옮겨담는 비용이죠"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

2390 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張吉山 (1606)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彌勒逆謀 第一章 (66)

옥여의 안내로 그들은 산길을 올라 물이 오르기 시작한 나무들이 빽빽이 우거진 암자의 어귀 오솔길에 이르렀는데, 경내 마당에서 서성이던 우대용이가 마주달려나왔다.

『얼마나 염려들을 했다구… 이렇게 무사해서 다행이다』

『평안도 있다는 애진 들었지』

길산은 형제 의를 맺을적에 대용이 아우뻘로 정해지기는 하였으나 언제나 그렇듯이 동무처럼 대하였다. 일찌기 그와는 해주 감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함께 탈옥했을뿐 아니라, 물과 뭍에서의 각기 다른 근거가 있던 까닭이었다.

『응,강화에두 나가있고 왔다갔다 하지,선비 성님… 소식은 들었우』

대용이 김기에게 인사를하며 말하였고 김기는 받았다.

『그렇게 되었네. 무엇보다 두 마두령과 오두령이… 아깝게 되었지』

『글쎄 말입니다. 나는 해주에 나가있던 아이들에게서 소문으로 들었읍니다. 처음부터 자비령은 괜찮을줄 알았고』

하고나서 대용은 선흥이의 등을 두드렸다.

『너 아들을 봤다며? 늦장가에 재미가 솔솔나겠구나』

『성님두 헛상투풀고, 이제는 장가를 드시우』

『그래 갈동이나 만석이나 서른 살이 다 되도록 장가도 못가고 죽었우』

길산이 중얼거리자 대용이는 빙긋 웃으며 한마디 하였다.

『장가는 뭐…갯것들은 그런일에 별 무관심이라』

그들은 암자에 들어 주승과 인사를 하고 둘러앉는데 우대용이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헌데…우리 문산포 상납은 어딜 가셨을까』

암자의 주지가 껄껄웃으며 말하였다.

『예, 산사에는 처음 오신다며 저 뒷봉으루 오르셨읍니다. 거기서는 읍 안악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지요』

김기가 물었다.

『문산포 사람이 누군가?』

『아, 이경순이라고…』

대용이 덧붙이자 김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큰 스님께서 얘기하던 사람이군. 그 살추제 겸제 일을 뒷바라지 했다면서』

『우리 성미에 맞습니다. 그 사람 덕분으로 우리는 화포와 총포를 구비했수. 지난번에 총욱이한테 보낸 물건 받았어?』

길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총열 자루인데 왜 총만큼 좋다구 하더라. 나는 어쩐지 맘에 안들더군』

『뭐 어디 고장난 데라두 있데?』

『아니 그런게 아니라, 칼 쥐고 뛰는 건 내키는데 바싹 엎드려서 부시치고 노리는 것이…』

김기가 말하였다.

『그래서 구월산 식구들이 한물된거요. 관군은 으레껏 범 사냥에도 멀리서 몰아가지고 방포하여 잡구 있오. 식구들을 모두가 방포술도 조련해 두어야하오. 장두령도 배우시오』

우대용도 끄덕였다.

『요즈음은 수군뿐 아니라 감영에 가도 포수가 백여명씩 있단 말이야』

그들이 한참 지난 얘기를 나누는데 밖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며 갓 쓴 이경순이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는 좌중을 한 눈에 둘러 보았다.

『어서 들어오슈』

讀書界에 「地球終末」범람

거의 16世紀노스트라다무스豫言 근거

核武器·환경파괴등 내세워 聖經의 계시록句節도 提示

"내일 파멸해도 오늘 사과나무" 자세필요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豫言書들이 쏟아져나와 僑胞의 讀書界에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1999년의 여름 어느날」이라고 정확하게 날짜까지 짚어보이고있는 이 豫言書들은 그렇지않아도 불안하고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心琴을 강하게 때리는 힘을 갖고 있어, 그 내용과 영향을 놓고 많은 생각을 하게한다.

요즘 갑자기 출판 붐을 이루고있는 이들 豫言書는 16세기 프랑스의 의사이고 예언가였던 노스트라다무스의 「모든 세기」에 근거를 둔것이 대부분이다.

그가운데 자유문학사와 드라이브사는 미국의 문필가로 「수수께끼의 버뮤다海域」을 쓴 찰즈·버리츠의 「Dooms Day」를 내놓았는데 드라이브社는 朴村번역에「1999년運命의날」로, 자유문학사는 鄭鳳和번역에「1999年죽음의 날」로 각각 출간했다.

또한 高麗苑, 東湖書館, 金蘭出版社등은 일본인 평론가 고도오벤(五島勉)이 쓴「노스트라다무스의 大豫言」을 내놓고 있다. 高麗苑은 李潤基譯에 「1999년8월18일 지구最後의날」로, 東湖書館은 姜殷譯에 「인류는 멸망할것인가? 1999년7월」이라는 제목의 본권과속권을 내놓았으며 金蘭出版社도 金崇來編譯으로「大豫言」1·2권을 내놓았다. 한편 한섬사도 五島勉과 西丸震哉共著·任秋環譯으로「實話大豫言」을 내놓았으나 내용은다른 고도오벤의 저술과 비슷하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6세기에 페스트의 예방법을 가르치는한편 프랑스국왕 앙리2세가 10년후 머리에 상처를 입고 죽으리라는것을 적중하기도했다는 전설적인예언가.

그는 그때 이미 「여자가 배를 타고 하늘을 날다. 그로부터 오래지않아 한 위대한 왕이 도루스에서 살해된다」고 말해 1963년 소련의 여자우주비행사가 나오고 같은해 11월 케네디대통령이 댈라스(도루스)에서 살해된다는것을 예언했다고 이 저술들은 주장하고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또 『갈고리형으로 구부러진 십자가를 끄는 강대한 마몬의 사제들이 도나우강 양쪽을 모두 점령한다」고해서 히틀러의 등장도 예언했다는것이다.

이밖에도 노스트라다무스는 뭇솔리니의 비참한 최후와 히로시마의 원폭투하등도 예언했다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그의 예언서 「모든세기」 10권에서 『1999년 7의 달』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모와의 대왕을 부활시키기위해 그 전후의 기간, 마르스는 행복의 이름으로 지배하려하리라」라는 대목이다.

이중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포의 대왕」은 핵전쟁에의한 대공습, ICBM, 인공위성, 혜성격돌, 우주인의 내습, 超光化學스모그등으로 풀이되고있다. 「앙골모와대왕」은 아직 수수께끼지만「마르스」는「火星」과「軍神」의 두가지 의미를 갖고있어 대체로 지구가 파멸적인 전쟁으로 멸망하리라는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7의 달」은 太陰曆에 의한것이고 이것을 양력으로 치면 8월이 되는데 특히 1999년 8월18일은 금성, 화성, 달등 위성이「大十字架」를 이루게돼 그의 예언이 한층 신빙성있다고 고도오벤은 주장하고있다. 이런「大十字架」가 되면 지구는 지진과 해일등 엄청난천재지변이 일거나 궤도를 벗어날수도있다고 일부 과학자들도 말하고 있다.

◇지구의 종말을 예고한 번역서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야할것인가』

이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외에도 汎友社는 페닉스·노아의 「계시록의 대예언」(崔鉉譯)을, 內外新書는「그리스도의 核戰爭」(나이또·마사요시著·김동사譯)을 내는등 종교적인 색채의 예언서들을 출간하고있다.

이중「계시록의 대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이론외에 자신의 점성술적인 이론을 가미하고있으며 다른 예언서들이「종말」로 그치는 것과는 달리 서기2천년을예언하고있는점이 다르다.

「그리스도와 核戰爭」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현대문명의 위험요소및 성좌의 동향등으로 지구의 파멸을 예언한것은 마찬가지이나 성경구절에 충실한것이 특색이다.

한마디로 이모든 예언서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식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현대적으로해석한것들이다.

달나라를 가는 세상에 이런「허황한」예언서가 주목을 끄는것은 무엇때문일까. 그것은 서기 999년에 있었던 소동과는 뉘앙스가 다르다.

예수탄생 1천년을 기록하게된 그 싯점의 유럽전역은 역시 「말세」와 「최후의 심판」이 가까와졌다해서 소동을 벌였었다.

부자들은 자칫 낙타가되어 바늘귀보다 좁은천당에의 문을 통과하지못할까두려워 좋은 옷을 마구 거지들에게 주었고 농가는 가축들을 해방시켰으며 빵집은 빵을마구주고도 대금을 받으려하지않았다.

인류는 그대로 천사가 되는듯했으나 그해 12월31일마지막시각이 지나자 다시「사탄」이 되었었다.

이런 희극은 평온했던 中世人들의 강한 종교적편견에서 나온것이나 요즘의末世論은 종교를 떠나서도 그 근거가 너무 뚜렷해보이는데 문제가있다.

인류를 수십번이라도 전멸시킬수있는 핵전쟁의 위협은 그만두고라도 이제는 기상이변을 일으킬수있는 환경파괴, 인구폭발과 자원고갈및 인간성의 황폐등이 한계에도 달한 느낌을 주고있으며 이 책들도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이 책들은 서기 2000년이 돼도 결코 휴지가 될수없는 일단의 진실을 담고있는 셈인데 이에대해 신학자 文相熙교수(延大)는 『노스트라다무스같이 말세론을 주장한 예언자들은 많으나 신학계에서는 지금까지 별로 관심을 보이지않았다. 이들이 갑자기 주목을 끌게된것은 지금까지 막연하지만 인식돼온 기독교의「종말론」이 행태학적인 현상같은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안한 시대를 맞아 기독교인들은 한층 요한계시록에 담긴 그리스도의 뜻을 되새겨야할것이다. 기독교인이야말로 사람들도 내일 우주의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려는 자세와 합리성을 찾아야할것이다』고 말하고있다.

【梁平기자】

블로아 & 베다스트 하드웨어

•가정용 실림도구(부엌)
•각종 전기제품 수리및 판매
•유리 (가구, 상점용)
•각종 철물및 PAINT
•PLUMBING 제품
•기 타

변 의 섭
☎ : 531-6183 608 Bloor St.W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W.
☎ : 530-0522(B)
531-4165(R)
조 지 섭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지렁이 잡이구함(유경험자에 한함)
최고가격 $20.00
☎ : 255-0730

좋은 농장, 좋은 골프장
최고대우 $20.00
☎ : 532-3637 미스타 게

밀크 스토아 캐쉬어구함 : 풀타임과 파타임
(유경험자 원함) DOWNTOWN지역
☎ : 925-0339

파티임 남자 헬퍼구함
848 MARKHAM RD.
☎ : 438-1528

정원사 헬퍼 풀, 파타임 구함
55세 이상, 영어필요없음
☎ : 653-8173(오후7시이후) 미스타 강

거주 하셔서(5일/W.)석달된 여자애기와 4살된 여자애 돌봐 주실분
☎ : 444-5778 미세스 Chalambalacis

입주하셔서 두 애기 봐주실분 구함
$400~$450
☎ : 783-0683(낮), 665-4853(밤) 미세스 하

재봉사 구함(LADIES' SPORTSWEAR)
번봉, 오바로꾸, 단, 풀타임, 파타임 or PIECE WORK
292 PARLIAMENT ST. AT DUNDAS ☎ : 362-2300

재봉사 구함 (남·여)
•약간명 •유경험자 •좋은 대우
•핸드백 만드는일
인터뷰 원하시는 분은
CALL 251-2543 AVIS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 531-0474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풀, 파트타임
☎ : 742-0800 미스타 차

광고가 필요하십니까?
한국일보 광고국에 문의하십시요.
533-2361-4

기 타

병원 감독자가 될 수 있는 코스를 택하고 싶으신분
시간당 $7, 일주일 코스
☎ : 961-1057

아파트 세 놓음 : KING & LANSDOWNE
2층 1베드룸, 지하실 2베드룸
☎ : 536-4250(오후6시이후) 이 대 환 부 동 산

매매및 양도

(포터블) 세탁기 2년
엑설런트 콘디숀 드라이어 6개월사용) 497-9180

베커 프렌차이즈 스토아 매매
325 ST. GEORGE ST.
☎ : 924-7696 미스타 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 $275
☎ : 635-1038

SMOKE & GIFT SHOP매매 : 주매상 $6500보장. 리스6년+5년 옵션 게임수입으로 가게운영비용 일체 지불할 수 있음.
☎ : 1-335-8946 ASKING $75000+스탁

밀크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도
ASKING 17000+스탁
511 MARLEE AVE. NORTH YORK

자동차 매매 : 76년도 핀토·스테이숀 왜건
POWER핸들, POWER브레이크(49,000마일)
☎ : 742-0434 좋은 콘디숀임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이주관계상
매매코자 함, 2 베드룸 달려 있음
☎ : 259-8139

아이스크림 기게 팝니다 :
☎ : 535-7772, 439-8885 (오후6시 이후)

12년동안 계속 성업중인 비지네스 매매
MEAT및 이와 관계있는 품목 취급, 호텔, 레스트랑, BAR등, 고정손님 있음, 쿨러, 냉동기, 2 냉장고.
그로스 년 $600,000
☎ : 449-1710 Call. VINCE CAIRO
PETER L. MASON LTD.

가게 렌트
•영·스트릿(새 교외지역)에 있는 아주 좋은지역임
(가게이름 : VALDI DISCOUNT FOOD STORE)
•자본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높은 이윤및 매상이 가능
•전화연락 : MRS. POPP(223-1606)

번잡한 노스·욕 몰안에 있는 스토아 매매
신산한 쥬스,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Fast Food취급
자동기구 완전 구비되었음, 남편의 직장전근상
매매코자 함. 그로스 Profit : 주매상 $1500의 73%
Asking : $40,000 ☎ : 249-3914
(CALL ONLY 7 : 30PM to 10 : 00PM) ZARINA

성업중인 BAKERY 매매
TOTAL PRICE $130,000 7만달러 다운페이 CASH원함
1603 CLARKSON RD. MISSI.(오후 내방)
7시 까지 미스타 김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성업중인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하드웨어 비즈네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는 절호의 기회임, 좋은 장소, 좋은 장래성, 좋은 가격임.
전화 : 741-4520
CALL JOE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박 충 남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각종 꽃종류, 조화, Plants취급. ＊꽃꽂이,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어디든지 배달가능합니다.
☎ : 769-0609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미 용

킴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시설및 수리

자동차, 집유리 설치, Repair합니다.
보험청구등 자동차 실내장치도 합니다.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3-0656(B), 493-7185(R)
정 해 문(핀치×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 •소파 •체어 •타일 •하드우드
439-6277 박 ,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에어콘·히팅·냉장고

각종냉장고 (가정용및 상업용)
ELECTRIC STOVE수리전문
☎ : 466-4304, 469-3341 박 기 황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김용환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824(B), 226-5430(R) 변 달 원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